

섬 마을 아이들의 꿈 ‘고향사랑기부’로 응원해 주세요

‘섬의 날×고향사랑기부’ 이벤트...다음달까지 28개 시·군 기부자 추천 섬의 날 체험권·호텔 숙박권 등 추가 제공...지정기부사업 경품 지급도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섬 마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이벤트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완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섬 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섬의 날×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섬의 날과 고향사랑기부 연계를 이벤트 개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행안부는 6월 30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목포·여수·거제·강화 등 전국 28개 시·군 대상 고향사랑기부자(일반기부) 중 40명을 추천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답례품 외에도 제6회 섬의 날 축하공연 입

장권, 체험 행사권, 행사 기간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완도 진도 등 전남 지역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지정기부사업 기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해당 지정기부사업은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지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고흥군 소록도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이다.

3개 지정기부사업 대상 기부자 중 총 10명을 추가 추천해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7월 15일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섬의 날 당일 8일 기념식, 축하공연과 체험전시관, 섬 걷기 행사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금일도 등 배를 타면서 완도군의 섬을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완도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를 연다. 완도 생일도 금곡해수욕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세안종합병원, 신안 도서 지역 찾아 ‘사랑의 의료’

전문의·간호사 등 의료진 20여명 건강 검진·돌봄서비스·상담 등

의료법인 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병원장 박찬원)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세안종합병원은 최근 신안군 압해도를 시작으로, 안좌면 등 섬 지역을 순회하며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0여 명의 병원 인력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팀은 근골격계 질환 및 관절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형외과 진료, 간단한 물리치료, 기본 건강검진, 복약지도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동행하여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찬원 병원장은 “섬 지역 주민들은 교통 여건과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세안종합병원은 ‘저음저림, 사랑으로’라는 다짐 아래, 가족을 대하듯 진심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안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신안 도서 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세안종합병원은 설립 초기부터 ‘고객 한 분 한 분의 행복이 곧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철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는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다”라며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표=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철쭉 분재 60여 종 자태 감상 신안군, 1004점 분재정원 25일까지 전시

신안군은 오는 25일까지 압해읍 1004점 분재정원 일원에서 ‘철쭉 분재’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60여 종에 달하는 아름다운 철쭉 분재 작품들과 60여 주위의 미니정원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붉은색과 분홍색, 흰색 등 다채로운 색상의 철쭉과 섬세한 분재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쭉의 꽃말인 ‘사랑의 즐거움’과 ‘졸기찬 번영’은 5월 가정의 달에 의미를 더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을 기원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펼쳐지는 철쭉 분재 전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철쭉 분재.

완도군목 ‘동백나무’ → ‘완도호랑가시나무’

사랑과 박애 정신 상징...꽃말은 ‘행복과 평화’

완도군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목(郡木)을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목을 기존 동백나무에서 지역 고유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는 안이다.

완도군이 군목으로 활용해 온 동백나무는 전국 27개 시·군에서 군목으로 지정해 완도만의 독자성

과 차별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완도에서 자생하는 희귀 수종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새로운 군목으로 지정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지난 1978년 국내 식물학계의 권위자인 고 민병갈 박사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해 국제학회에 보고한 수종이다. 독특한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사계절 푸른 녹색 잎과 빨간 열매로 관상 가치가 높은 난대 상록수종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뜻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다.

완도군은 녹색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완도읍 시가지 진입로(국도 77호선 일원)에 완도호랑가시나무 거리를 만들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완도만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종이다”며 “완도의 지명이 담긴 수목을 지역 특화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영광군, 청년들 정책 참여 기회 확대

행정 소통 강화...청년부군수 1명·청년정책위원 14명 공모

영광군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 군 행정과의 현실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부군수’와 ‘청년정책위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정책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군정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세우겠다는 군정 철학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다.

모집 분야는 청년 부군수 1명과 청년정책위원 14명으로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영광군 거주자 또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마감은 16일까지다.

영광군이 추진 중인 청년부군수 제도는 영광 청년을 대표하는 역할로 군수와 함께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주요 현안활동이나 회의에 참여하며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청년정책위원은 청년부군수와 함께 청년정책 제안,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과 정책추진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접수는 이메일(magicexo@korea.kr) 또는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오디션 형식의 발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정환 기자 kcw@kwangju.co.kr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하면 처벌

28일까지 일제 단속...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진도군이 오는 28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며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를 기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

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 갯벌·제염 문화 직접 보고 체험하고

갯벌탐험대원 25명 선발...21일~8월 13일 매주 수요일 운영

무안문화원이 ‘2025 황토골 유산탐험대’ 갯벌 탐험대원을 모집한다.

이 행사는 무안 대표 생태자원 갯벌과 무형문화유산인 제염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탐험대는 총 25명 이내로 선발되며, 오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중

목 지역 연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후원으로 진행된다.

탐험대원들은 갯벌의 가치를 배우고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책자 제작과 전시회 등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 로컬크리에이터에 최대 5000만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창업자·복합매장화 사업 참여자 모집

해남군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창출가)를 본격 육성한다.

해남군은 오는 20일까지 읍 구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전담할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창업자와 복합매장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내 신규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복합매장화 사업자에게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

입이나 인건비, 재료비와 포장디자인 및 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 항목별로 최대 지원금이 설정돼 있다. 자부담 10%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구유치를 위해 관외에서 해남군 이주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실시한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도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이나 상권활성화 추진단 누리집인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